

지역 소식통

정읍, 일자리생태계 조성
기업 지원 확대 나서

정읍시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 보다 3%포인트 높은 72.4%를 기록한 가운데, 시가 고용성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 확대에 나선다.

통계청의 작년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정읍시 15~64세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72.4%로 집계됐다.

시는 고용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23일까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공모해 고용성과가 우수한 지역 내 중소기업 2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중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2명 이상 고용을 늘린 기업이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2000만원 상당의 근로환경 개선비가 지원되고, 세부조사 유예 등 행정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시는 이번 우수기업 발굴을 통해 고용 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기업 환경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에 수수료 지원

정읍시는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참여 농가의 유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읍농협, 정읍원에농협, 신탐조합 등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참여 농가에게 납품 수수료로 총 12%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시는 수수료 중 3%를 지원하고, 농협에서도 1%를 추가 부담해 농가는 8%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 예산은 총 2억 5000만원(전액 시비)이며,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중 1차 농산물을 직매장에 납품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단, 축산물과 가공품은 제외되며, 지난해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유용미생물 '바로배송 서비스' 지속 운영

고창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유용미생물 바로배송 서비스'를 멈추지 않고 운영 중이다.

지난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5월 미생물 바로배송 서비스 시행 후 현재까지 약 85톤의 미생물이 공급됐다.

특히 바로배송 시행 후 전체 미생물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바로배송으로 나가고 있으며, 농가들이 가까운 읍·면에서 미생물을 편리하게 수령하고 있다.

군은 '바로배송 시간표'에 따라 주 5일(월~금) 읍·면 공급체계를 마련, 기존 주 2회 공급보다 대폭 확대된 것으로, 농가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또 농가로부터 공급 균주와 공급량 확대 요구가 지속되면서 지난 6월16일부터 기존 3종의 균주(혼합균, 고초균, 광합성균)에서 고온성 미생물을 추가로 공급해 총 4종의 균주를 공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정읍시 ‘온(溫)온(ON)’ 사업 호응… 식생활·건강 정서지원 등 6개 프로그램 구성

정읍시가 취약계층의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사업 ‘온(溫)온(ON)’을 통해 촘촘한 생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시 지정기탁금 7400만원을 활용해 지역 사회복지관과 함께 ‘온(溫)온(ON)’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식생활, 건강, 정서지원을 아우르는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중장년층 1인 가구 등 고립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일상의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장 먼저 추진된 ‘이가튼튼’ 프로그램은 치과 진료와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치과치료 지원 사업이다. 섭식 문제 해결과 구강건강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영양 상태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포근하(夏)동(冬)’은 계절별로 이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방문을 통



해 연 2회 보온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새콤달콤’은 연 4회 제철 과일을 가정에 직접 전달해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돕는다.

특히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은 요리교실 ‘마음레프’다. 이 사업은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총 14회에 걸쳐 제철 반찬 만들기 교육을 운영하며, 단순한 요리 수업을 넘어 관계 형성과 정서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홈도탕’은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위한 밀키트 및 유동식 지원 사업으로, 매월 2회 꾸러미를 제공한다. 또, ‘내가 고른 찬’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에게 밀반찬 가게 이용권을 주 1회 지급, 직접 반찬을 고르고 구매하는 자율적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생계나 돌봄뿐 아니라 정서적 단절을 해소하려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이라며 “고립 위기 가구가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요리교실 참여자는 “혼자 밥을 먹던 일상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함께 요리를 배우고 대화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전했다.

치과 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치아가 아파서 굶기도 했는데, 이제는 웃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2025 대한민국 환경대상'에서 생태환경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생태환경 전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정책성과를 거둔 결과다.

생태복원 1번지 지자체로 ‘우뚝’

고창군, 2025 대한민국 환경대상 ‘생태환경 분야’ 수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2025 대한민국 환경대상'에서 생태환경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생태복원과 환경교육, 탄소중립 실천 등 생태환경 전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정책성과를 거둔 결과다.

지난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국회 한정기법관에서 대한민국환경대상 위원회(위원장 이규용) 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생태환경분야)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국내 최초의 기초지자체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다각적인 생태환경 정책을 실행해왔다.

최근 3년간 군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훼손지 복원, 친환경 인프라 조성, 환경교육 기반 확대, 탄소중립 정책 이행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도시'로의 정체를 확립했다.

특히 덕산리 일원에서 진행된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8만8102㎡ 규모의 훼손지를 복원하고, 멸종위기종(가시연꽃) 서식지 확보, 생태관광 연계, 환경교육 등 다차원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또한 눈에 띈다. 군은 해당 공모사업으로 고창읍성(서문) 소생태계공원, 석정 외정재 가시연꽃 서식지, 보릿골 쉼터이음, 배풍산 마을숲, 월곡 뉴타운 탄소중립숲 등을 조성하며 훼손지 복원과 주민 체감형 녹지 확충을 동시에 달성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폭우·폭염 속 따뜻한 동행’... 정읍시장 현장 행보

어르신 폭서기 복지대책 점검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읍시가 취약계층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18일 현장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폭서기 맞춤형 복지 대책을 직접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감곡양수제(경로당)를 찾아 폭염과 집중호우 속 야외활동이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상황을 직접 살피고 위문했다. 이어 감곡문화체육센터에서 전북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함께 전북, 정읍시 착한 한끼 나눔 행사’를 개최해 지역 어르신 300여 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네일아트, 귀반사, 보청기 점검 등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체험과 건강 서비스도 함께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폭염으로 지친 심신을 달랐다.

시는 이와 함께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어르신, 노숙인, 폭방 주민 등 폭염에 민감한 계층은 물론, 이동을 고독사 위험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 전반을 아우른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8일 관내 한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폭서기 맞춤형 복지 대책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폭서기 대비 꾸러미에는 복지서비스 안내지를 함께 넣어 위기가구 발굴을 유도하고,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화 안부 확인을 비롯해 선풍기 보급, 경로당 수박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확대했다.

전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체 경로당과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

요한 지원을 연계하면서, 지역 기반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도 폭염에 취약한 복지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보호하고, 풍수해와 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도 여름철 주변의 취약 이웃을 살펴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 고창 해역 해상풍력단지 조성, 정작 주민은 배제

주민들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 알 수 없다”... 한국해상풍력 향해 ‘껍데기 본사’ 지적도

한국해상풍력(주)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6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수력원지력)가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 법인으로 2021년 전기사업허가권을 획득하고 시범사업(400MW) 추진에 나섰지만, 그 실체는 여전히 ‘껍데기 본사’라는 지적으로 지역상생과 생색내기식 활동으로 부안군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한국해상풍력은 14조 4,000억원을 들여 부안·고창 해역에 2.46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본사를 부안을 석정로 179 KT부안지사 3층에 두고 있지만, 이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단 3명뿐이다.

본사 이전과 함께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범사업 기간 약 10만여 명의 인력 동원과, 운영기간 20년 동안 80여 개 일자리 창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급, 주민참여형 사업 도입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감을 부풀렸다.

주민들은 “대규모 사업을 부안에서 한다면서 지역민은 배제되고 있다”, “상생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홍보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해상풍력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총사업비 3,700억 원)를 운영 중이며, 위도 인근 해역에 시범사업(400MW, 약 2조 4천억 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진척 상황이나 성과는 뚜렷하지 않아, 군민들은 “언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지조차 알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부안을 단지 사업의 배경으로만 활용하지 말라는 군민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답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의회, 군정업무보고... 의원들, 날선질문 · 문제점 지적 나서

부안군의회가 제363회 임시회를 지난 15일부터 개최하고 오는 23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이번 회기 군정업무 보고에서 이현기 의원은 알차고 현실적인 질문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탈마루와 노을빛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연계되느냐 또 정부가 신동진 비의 다속화풍종을

나오지 못하게 하면 농사꾼은 죽으라고 하는 것이냐며 행정에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또한 박태수 의원의 질문에서 농촌 활력파장에게 김치클러스터 조성이 사업3년째 진척되어 언제 할 거냐며 사업상의 부족을 어필했다.

박병래 의원은 청년임대주택조성을 행정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다며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인 것을 지적으로 민원과장은 비싼 건축비용과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민선 8기 후반기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현장에 답이 있는 것처럼 정책이 실제 군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 회복에 힘을 보태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지난 16일부터 2025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며, 각 분야별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와 질문을 이어갔다.

김석환 위원장은 시민참여 정책제안에 대하여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분야별 공모방식을 세분화하여 시정에 더욱 깊이 있는 참여와 다양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오승현 부위원장은 약성민원 대응 배심원단이 공무원만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공정성 등을 위하여 외부 민간위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승범 의원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 운용평가를 실시할 것과 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형 의원은 국가암검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위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암의 종류를 추가하여 조기 진단으로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혜수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대하여 기부자가 공감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만재 의원은 인구소멸 대응을 위하여는 인구정책과 국가예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관련 부서의 인력충원 등 위기 대응의 적극성을 주문했다.

한선미 의원은 창의적인 주민자치회 컨설팅과 교육 등의 역량강화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로 주민들이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고성환 의원은 SNS 관례해 새로운 트렌드와 환경 변화에 발맞추는 콘텐츠 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읍을 알고가고 찾아올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편,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위원회별로 22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안건을 심사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올 제1회 추경 심사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 제317회 임시회가 지난 7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신)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적기에 사업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한 결과 2025년 본예산 대비 225억원이 증액된 8720억원으로 최종 심사하였고,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상임위 의원심사 결과를 보면 운영위원회 소관 △고창군의회 기본조례 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선덕 의원) 1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도서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임종훈 의원),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오세환 의원), 고창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이경신 의원) 등 8건, 총 15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일부터 17일까지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18일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이선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 의원은 ‘고창군 여성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체육여건 조성방안’을 주제로,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공공 유휴공간과 여유 시간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여성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여성 연령에 따른 선호도와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창=김영식 기자